

우리의 懸賞競技는 이런 길을 걸었다

元 正 洙

市民會館 懸賞 公募가 가지는 의의

높은 建築的 해석과 建築的 실현능력, 作家的 존경과 責任을 묻는 사회적 적분에서 보다 혈연과 地緣 아니면 건축 Project가 한낱 수입원에 불과한 말초적 미기에 지나지 않게 전락되어진 현상을 느낄만큼 建築人口, 특히 建築士法 실시 이후 建築士의 설계 업무 종사의 파다 경쟁은 심각한 建築人 전 반에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한다. 이러한 때 市民會館 懸賞이 建築界 에 던진 파문은 해방 후 우리는 당면하는 現實에서 실제적 體驗을 겪어 오 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씩 깊이 認識하게 되는 主觀意識에 따라 社会的 革新을 갈망하고 改革할만한 意志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을 改善 打開 하 기에 누구나 어려움을 긍정하는 現時点이다. 예를 들어 入試지옥을 연출하 였던 教育制度의 재평가를 가질 만큼 크게 다른 각계 각 분야에 서로 자각 과 發展의 구상을 바로잡는 사회적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우리 建築家가 걸 어온 지금까지의 制度上 얽매었던 여러 난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活力素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주시하 게 되며, 지금까지의 意慾과 建築的 재량과 우수한 작가의 현실적, 사회적 참여와 哲學的 主觀과 비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의기 초췌했던 모든 사람 을 재생케 하는 기회로서 만들어진 당국과 역사적 시점에 일어날 필연적 용단으로 믿고있다.

참고로 내용을 펼쳐 나가기 앞서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치루 었고 겪어 나온 建築的 重要性을 지닌 懸賞設計가 實施되었던 資料를 다음 과 같이 돌이켜 볼 수 있다.

현상 당선작과 중요 내용

년도	내 용	당 선 자	시 행 자	비 고
1954	(지명) 공 군 본 부	김 정 수	공군본부	
1954	시 의 사 당	이 광 노		
1957	(일반) 시 민 회 관	당선작없음. 가작	이 천 승	
1959	(일반) 국 회 의 사 당	박춘명 외 3명		
1959	(지명) UNESCO	당선작없음. 가작	구 조 사	
1963	(일반) 부 산 진 역 사	이 광 노	철 도 청	
1963	(일반) 남산 시민도서관	이해성 외 1명	이 해 성	
1966	(공개) 국 립 박 물 관	강 봉 진	강 봉 진	
1967	(공개) 정부종합청사	당선작없음. 가작	나상진, PAE	저작권문제 둘러싼 신민 공개 전시회에서시 민여론조사를 구함
1969	(지명, 공개) 국회의사당	안영배 외 1	김중업, 이광노	
1973	(공개) K B S 현상	당선작 없음. 가작	안영배	

懸賞公募 施行上 생겨진 문제들

지나온 크고 작은 懸賞競技를 가져본 결과에서 나타난 問題들은 좋은 성과를 가져보려는 試圖와 熱情은 누구나 모두 공평하게 갖고 있다는 事實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선의의 경쟁과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懸賞의 기회를 서로 다른 目的과 해석으로 풀이하는 結果는 실제로 그 작품과 제작행위가 갖고오는 公益的 기여도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여러가지 再評價와 재론의 반응을 일으키는 副作用이 뒤따르고 있다. 社会的 職分으로서 建築的 이해가 社会的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한 까닭으로 건축조형과정이 극히 성과를 올리기엔 힘든 현상을 갖고 있음도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당면한 資料이다.

選定된 懸賞作品과 著作權 문제

현상 당선작 選定 處理와 實際로 세워지는 과정, 結果, 成果問題, 創作과정의 현상기획 과정의 不成實로 인하여 일어나는 구속 조건, 당선작품이 참고 사항으로 그치는 結果 대체로 기획과정의 태만이 따르는 데 이는 一般 建築 project의 발주 단계와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作品結果를 보고 난 뒤 비로소 모순을 확인하게 되는 처사로 機能 構造의 재조정 또는 예산 執行의 모순을 發見하고 당선작의 무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眞實로 훌륭한 作家能力의 백분 活用을 통해서 뛰어난 作品을 구하여 세웠다는 결과 과정은 극히 드문 실정이다. 참고 圖表에 기재되지 않은 行事 가운데 地方에서 公募한 다른 현상경기 행사 결과를 보더라도 특수지방의 지역 발전 육성이란 문제를 들추어 建築 본질을 벗어난 지방 人事 利權으로 결과를 밀어 부친 사례도 더러 있었다.

현상작품 밀도의 질적 수준

투시도의 경쟁으로 시네마스콥 효과로 타작품의 가치를 흐리게 하는 처사가 있었던 기회도 있어 마치 투시도가의 행세와 행패로 당락이 좌우되는 事例도 야기했고, 평면 동선놀이의 경쟁으로 공간과 환경, 미래의 가치성의 문제가 있다. 또 타작품과 效果面의 內容만 비교하는 선발이 되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 근시적인 創作 習性에 젖는 作家의 조장만 남게 한다.

정당한 현상의 실효를 거두는 육성방안

作品에 임하는 연령도 早老현상을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40代 전후한 “Team”의 경합이 성행해야 한다. 이제 建築言語에 있어서 圖形上 표현에 자신을 갖는 추리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現象에 임해야겠다. 그러나 이런 水準만으로 대조 선발하게 되면 言語 水準의 저하의 탈피가 어렵고 40代 이전에 實質的 창의 活動의 중단으로 비롯되는 우리나라의 與件이 문제가 된다. 지도적 建築 기성 세대의 能力과 역할이 구두 지적과 권위만으로 建築 전문직의 역할로 퇴보되거나 새로운 後進들도 그런 形式的 지위에 野心을 거는 一般的 경향은 진실로 성과를 바라는 現象內容의 창달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상설계의 결과 우수한 建築人의 育成, 더욱 새롭고 밝고 명확한 자기 소신과 공동목적에 적용되는 비전 전개, 우수작의 실현으로 생활환경의 정화를 이룩하여 建築이 一般社會 인식과 유대를 굳게하며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겠다. 거족적인 懸賞 行事 일지라도 建築人 사회만의 자축회나 자치회로 간주해 버리거나 무관심하고, 심지어 이를 施行하는 당국자일지라도 建築人의 事業의 利權으로 해석해 버리는 현실을 때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현상의 異見에 때로는 他人의 이익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보고 비난하는 실정을 볼 수 있다.

현상의 결과는 당선작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 1,000이 참가해도 999는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개인적인 이익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 문제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多類 작품에서 選別의 문제

우수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基準을 얼마만큼 높은 次元에 올려 놓는가에 따라 그 결과의 가치는 좌우된다. 대부분 면적, 예산에 얽매이고 그 建築主의 눈치를 살피는, 또는 建築人 이의 비전문인의 단편적 개인 감정 비판에 희생되거나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쫓기는데 그치는 結果는 극히 다음의 문제들이 심각해진다. 진심으로 作家가 양심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높은해도력으로 發見해 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현상의 큰일을 바로 매듭짓는 일이다. 지난 예를 들이켜 심사 과정은 여러 다른 시점과 안목에서 보는 次元의 基準이 多様하므로 심사 과정과 方法의 結果를 公開와 對話를 나누므로서 작품작에 대한 귀중한 補賞이 있을 뿐이다. 허나 극히 가족적 분위기란 對話形式으로 非論理的인 과정을 통해서 동정표를 모으는 온정적인 방법을 취하기 쉬우므로 자칫하면 심사위원의 역할이 우수한 작품 解説이나 개인적 직감으로 많은 작품의 平価를 내려고 좌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요사이 교육제도에서 출제자의 진학과외의 사회문제와 같이 현상 과외 지도 형식을 조성하며 새로운 건축 년론의 발아에서 번이를 보게하는 슬픈 現象을 갖게 한다. 한편 현상 지도의 경험은 建築 教育에서 가장 比重이 큰 것은 事實이다. 지도자의 더욱 넓고 깊은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앞서 말한 project를 따기 위한 사업적 포착의 技術 경쟁으로 전략하기 쉬운 것이다. 決코 옳고 바른 길을 찾아 들어선다는 것은 어느 선진 대상과 역사를 보아도 그릇된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發展과 社會的 公益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을 낳게 한다. 바라건대 해방 후 20여년이 쌓여서 비로소 사회문제로 일어난 교육제도의 개선이라던가 기타 각 분야의 시정이 사회인의 공감을 얻을 만큼 역사와 경험을 증명하는 마당에 우리 建築界도 새로운 活力을 찾고 사회적 基幹으로의 참 모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계획 설계 과정의 물이해

建築界가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작가, 학계, 기술 각 부문 불균형이 유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그 것은 바로 設計 行爲 하나 만으로 建築人의 생활 재원이 염출되는 建築과 사회와의 가늠다란 통괄구에 불과하는 극히 一次元的인 이해 관계에 존속을 의지해 왔으므로 建築界가 사회에 뿌리

박고 활동적 지도자로 앞장 설 만큼 여러 分野의 발전이 거의 외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상작품의 우열보다 누구에게 project를 선사하거나 소위 따주는 듯한 인상의 움직임이 깔린 것이 바로 현상 뿐만 아닌 다른 側面에서 建築界가 複合的 多層 構造로 사회와 재원의 連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에 몰이해한 사람일지라도 작품과 작가육성의 대열에 관여하고 흐리게 하며 建築에 대한 사회인식을 크게 오염시키는 행위가 자행됨이 바로 建築人의 精神的 생계를 위협하리 만큼 절박하게 되고 있다.

우리가 처해 있는 歷史的 段階를 보면 형식은 도입되었으나 내용면으로 실효와 결과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建築社會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建築 전문인의 직종은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 거의 다르고 있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해서 건축가에게 새로운 생활 환경의 創造를 의뢰하고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국민의 수요는 극히 적다.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의 사회구조의 기반이 되었다는 현실을 자유 경쟁의 사회적 성장의 發展的 與件과 최선 方法으로 채택 도입되었을 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나 긍정 호응하는 것이었으나, 단계적 우리 사회의 성장에서 절실히 싹튼 사회제도 개혁에서 일어난 제도에서 보다 외부의 형식에서 선구자와 지도자의 선견과 국민 개개에서 부터 깨우쳐 준 우리 미래의 진로로 믿고 쫓게 된 것은 建築 分野와 비롯된 모든 우리 社會 成長의 현실이다.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단순히 당선작품 선별에 그치는 미인선발 대회 같은 行事가 아니다. 建築人의 育成, 建築人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의 實質的 참여와 깊은 유대를 이룩하며, 단순한 技術職 뿐이 아닌 인간으로서 사회문제를 옹기 통찰한 생활 환경의 제시를 가능케 하는 계재를 마련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다. 옳은 결과를 바랄 수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 正確하고 바른 현상 경기 내용과, 公正한 주관, 그리고 公正한 운영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유형의 작품 채점 결과보다 다음 세대를 의식한 建築전반을 의식한 결과를 인식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